

학내 여성운동의 흐름을 진단하며 자치와 연대-그 혼한, 그러나 쉽지 않은...

발신 : 두입술 편집위원회

수신 : 총여 및 자치단체

안녕하세요? 우선 낯선 이름에 의아(당황)해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희는 두입술이라는 새이름과 함께 학내의 독립적인 전문여성언론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험도 적고 함께 하는 이도 많지 않아 고전하고 있지만, (주위에 관심있는 사람있으면 소개를 좀..) 심도있고 알찬 언론지를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드렸구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을 찾게 된 이유는 이번 창간준비호 특집으로 기획하고 있는 '학내 여성운동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치질서에 대한 활발한 고민과 함께 학내 여성운동의 흐름은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들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함과 불안정함 속에서 지지부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자치질서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하는 학내여성운동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벌여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으로 다른 단체들과 변별점을 가지면서 내부 동력을 가지려 하는지 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 한달 전에 간단하게 구두로 말씀드린 팀들도 있을텐데요, 이제서야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내에, 혹은 서로간에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자치단체들의 성격과 구체적인 활동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들이 직접 자신들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처음 만들던 당시의 배경과 문제의식, 그동안의 활동사항,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면 밝혀주시면 좋겠구요,) 앞으로의 활동전략과 계획, 간단한 자기소개(개인적인 소개가 아니구요, 단체소개) 등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각자 알아서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형식제한도 없으니 재미있고 알차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4월 첫째주까지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는 각 모임들에게 그리 큰 부담이 되는 제안은 아닙니다. 머지않아 총여와 자치단체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편집위에서는 그러한 자리를 빌어 어떻게 학내 여성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여성운동체들간의 연대를 구상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관한 논의를 제안합니다. 이는 자치단체들간의 연대테이블을 구성한다고 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반이 취약한 개별단위의 힘을 보강하고 서로에게 활력과 자극을 주면서 여성주의 권력을 보다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자치단체들간의 연대는 필수적이겠지요.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경험상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단지 예산을 따내기 위해 연대테이블을 구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히 여성학커리를 공유하는 것만을 연대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기 다른 정체성을 지닌 단체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연대가 가능한지, 또한 각 단체들이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도 나름의 전문성과 내부동력을 잃지 않고 활동해 나갈 수 있는지 등의 논의가 보다 심도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